

~

샤또브리앙의 작품에 나타난 지중해와 대서양의 이미지 비교연구

이 산 호
(중앙대학교)

■ 차 례 ■

- | | |
|---------------------|-------------|
| I. 서론 | III. 영혼의 요람 |
| II. 고대로의 귀의(歸依)의 통로 | IV. 결론 |

I. 서론

브르타뉴반도의 북쪽 끝 항구도시 생 말로에서 태어난 샤또브리앙은 어린시절을 바다와 함께 보냈기에 누구보다도 바다와 친숙했었다. 평생 동안 바다에 깊은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할머니처럼 바다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¹⁾ 바다는 그에게 첫 스승이었으며, 영혼의 요람이었다. 그는 북아메리카대륙을 여행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넜으며, 남유럽 여행에서 지중해를 만나게 된다. 그는 선상에서 혹은 바닷가에서 바다를 노래했으며,²⁾ 바다를 작품의 중요한 배경으로

1) "J'aime la mer comme ma mère et ma grand-mère. Elle m'a vu naître..." Chateaubriand, *Correspondance générale*, II, Paris, Gallimard, 1979(이하 C.G.II.로 칭함), p.71.

2) "Des auteurs français de ma date, je suis quasi le seul qui ressemble à ses ouvrages: voyageur, soldat, publiciste, ministre, c'est dans les bois que j'ai chanté les bois, sur les vaisseaux que j'ai peint l'Océan..." Chateaubriand, *Mémoires d'Outre-Tombe*, II,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51(이하

삼았고, 자신의 심적 상태를 바다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다. 그리하여 그는 프랑스 문학에 바다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전파한 대표적인 작가가 되었다. 대서양의 풍경은 René, *Atala*, *Mémoires d'Outre-Tombe* 등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Les Martyrs*와 *Itinéraire de Paris à Jérusalem*에는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다. 이렇듯 바다는 샤토브리앙의 문학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의 문학을 바다의 문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샤토브리앙 연구에서 바다는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루어온 주제였으며, 그 결과 바다가 그의 삶과 문학적 성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밝혀졌다.³⁾ 그는 바다를 우주적이고 신비스런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인간과 바다의 교감들에 가치를 부여했다.⁴⁾ 모로는 그를 개종시킨 것은 산봉우리에서 내려온 영기(靈氣)가 아닌 물에서 잉태된 성령이었다고 단언할 정도였다.⁵⁾ 김현은 그의 바다는 상투적이고 수사적인 바다가 아니라 영혼 상태를 나타내는 '심적 표현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⁶⁾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은 대서양만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피넬이 대서양과 지중해를 기독교적인 바다와 이교적인 바다로 구분하고, 바다는 그에게 '성스러운 것'⁷⁾이었다고 밝히

M.O.T.II.로 칭함), p.935.

3) 샤토브리앙의 작품에 나타난 바다의 이미지 연구는 다음 저작들을 참조하시오. M. Pinel, *La Mer et le Sacré chez Chateaubriand*, Albertville, Claude Alzieu, 1994, M. Lehtonen, "Chateaubriand et le thème de la mer", in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Etude françaises*, Paris, Les Belles Lettres, 1968, R. La Croix, *Les écrivains de la mer*, Paris, Christian de Bartillat, 1987.

4) "Le Premier, Chateaubriand aura donné une dimension cosmique et quasi mystique de l'Océan. En même temps, il aura mis en valeur les correspondances de celle-ci avec l'homme. Une vision profonde et définitive de la mer." R. La Croix, *op. cit.*, p.57.

5) "L'esprit qui le convertira n'est pas le souffle qui vient des cimes: c'est l'Esprit qui était porté sur les eaux." P. Moreau, *La Conversion de Chateaubriand*, Paris, Alcan, 1933, p.4.

6) 김현, 「바다의 이미지 분석」, in 『프랑스 현대문학을 찾아서』, 기린총서 32, 1989, p.161.

7) M. Pinel, *op. cit.*, pp.72-146.

기기는 했지만 샤또브리앙 연구에서 지중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는 대서양뿐만 아니라 지중해 역시 삶과 문학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표상하기 위해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시켰다. 그러므로 지중해의 이미지 연구는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Les Martyrs*와 *Itinéraire de Paris à Jérusalem*을 중심으로 지중해의 이미지와 대서양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II. 고대로의 귀의(歸依)의 통로

샤또브리앙은 1806년 집필 중이던 산문서사시 *Les Martyrs*의 생생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그리스를 여행했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지중해를 직접 보기 전에 쓴 *René*와 이후에 쓴 *Les Martyrs*에 나타나는 지중해 묘사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René*에서 젊은 시절 ‘세기말 병’에 감염되어 지중해를 여행한 르네는 이곳에서 어떤 매력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토로한다.⁸⁾ 그러나 *Les Martyrs*에 묘사된 지중해의 풍경은 독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이다. 샤또브리앙은 선상에서부터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밤 8시 경에 바람이 잦아들었으며, 바다는 고요했고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서 나는 첫 석양과 그리스 하늘에서의 첫 밤을 향유했다. 아프리카 해변까지 이어진 온전한 바다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석양빛은 결코 강렬하지 않았다. 태양은 장밋빛으로 물든 구름들 사이로 지고 있었다. 태양은 수평선 아래로 빠져들었고, 황혼이 30분가량 태양을 대신했다. 가벼운 증기에 쌓인 수평선은 하늘의 경계와 뒤섞여 있었다.

8) Chateaubriand, *René*,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 p.124.

Le vent étant tombé vers les huit heures du soir, et la mer s'étant aplanie, le vaisseau demeura immobile. Ce fut là que je jouis du premier coucher du soleil et de la première nuit dans le ciel de la Grèce... devant nous était la pleine mer qui s'étendait jusqu'aux rivages de l'Afrique. Les couleurs au couchant n'étaient point vives; le soleil descendait entre des nuages qu'il peignait de rose; il s'enfonça sous l'horizon, et le crépuscule le remplaça pendant une demi-heure. Les horizons de la mer, légèrement vaporeux, se confondaient avec ceux du ciel.⁹⁾

샤또브리앙이 지중해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풍경의 부드러운 아름다움만은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신화적이거나 역사적인 추억들 속으로 기꺼이 빠져들었다. 그가 젊은 시절 원시적인 대자연에 취해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다면, 중년에는 역사 탐구에 몰두하며 고대에서 안식처를 찾는다.¹⁰⁾ 중년의 인간은 추억과 역사의 예로 정신을 함양한다는 것이다.¹¹⁾ 그의 그리스 여행은 고대를 향한 여행으로 그는 여행 중에 무엇보다도 고대의 흔적을 찾는데 열중했다. 호머, 비르길리우스, 펜느롱의 작품들을 탐독했던 그가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화와 고대 역사의 장면들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¹²⁾ 수많은 신들과 영웅들이 편력했으며 '고대문명의 요람'인 그리스의

9) Chateaubriand, *Itinéraire de Paris à Jérusalem*,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이하 I.P.J.로 칭함), pp.775-776.

10) "Aujourd'hui, je m'aperçois que je suis beaucoup moins sensible à ces charmes de la nature... Quand on est très jeune, la nature muette parle beaucoup; parce qu'il y a surabondance dans le coeur de l'homme; tout son avenir est devant lui... mais dans un âge plus avancé... la nature seule devient plus froide et moins parlante... pour qu'elle nous intéresse encore, qu'il s'y attache des souvenirs de la société." Chateaubriand, *Correspondance générale*, t. I, Paris, Gallimard, 1977(이하 C.G.I.로 칭함), p.307.

11) "...dans un âge plus mûr, l'esprit revient à des goûts plus solides: il veut surtout se nourrir des souvenirs et des exemples de l'histoire." I.J.P., p.831

12) "Le voyageur observe parfois la nature, mais selon un code élaboré qui dessine notamment le modèle classique d'appréciation du rivage. Le regard se met au

바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감동은 배가 된다.

나는 고대 그리스의 국경 위에 그리고 고대 로마의 경계에 있었다. 피타고라스, 알키비아데스, 시피온, 시저, 폼페이우스, 아우구스투스, 호라티우스, 비르길리우스가 이 바다를 건넜었다... 이름 없는 여행자인 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위대한 인물들을 실어나르던 배들의 지워진 항적 위를 지나며 뮤즈의 여신들을 찾으려 그들의 조국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온 마음으로 파노섬이 칼립소의 매혹적인 섬이기를 갈망한다... 펜들롱과 호머의 눈으로 자연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여!

J'étais là sur les frontières de l'antiquité grecque, et aux confins de l'antiquité latine, Pythagore, Alcibiade, Scipion, César, Pompée, Cicéron, Auguste, Horace, Virgile, avaient traversé cette mer... Et moi, voyageur obscure, passant sur la trace effacée des vaisseaux qui portèrent les grands hommes de la Grèce et de l'Italie, j'allais chercher les Muses dans leur patrie... je veux de tout mon coeur que Fano soit l'île enchantée de Calypso... Malheur à qui ne verrait pas la nature avec les yeux de Fénelon et d'Homère!¹³⁾

샤또브리앙에게 지중해는 고대의 텍스트들을 통해서 이미 익숙했기에 그는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꼈다.¹⁴⁾ 그는 펜들롱과 호메로스의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고대의 신들과 영웅들의 숨결을 들이마셨다. 지중해는 그가 신들과 고대인들과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시간의 넘나듦, 현실과 초월 세계의

service du texte antique inscrit dans la mémoire." A. Cobrin, *Le territoire vide, L'Occident et le désir du rivage*, 1750-1840, Paris, Aubier, 1988, p.59.

13) I.P.J., pp.774-775.

14) "(Chateaubriand) voit vite parce qu'il retrouve. Les beaux textes logés dans sa riche mémoire suscitent le pittoresque, font jaillir l'arc-en-ciel." R. Canat, *L'Hellénisme des Romantiques*, Paris. Didier, 1951, p.40.

넘나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어렵지 않게 이폴론과 칼립소를 불러냈고, 율리시즈와 텔레마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런 이유로 생트 뵈프는 그를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리스 여행 중에 그리스인이었고 이교도였다고 평가했다.¹⁵⁾

샤또브리앙의 고전적 상상력에 의해서 파노 섬은 곧바로 율리시즈가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던 칼립소의 매혹적인 섬이 되었다. 그는 텔레마크의 배를 둘러싸고 있는 요정들을 보았고, 친구들과 노니는 노시카의 쾌활한 목소리와 강변에서 울고 있는 앙드로마크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인다.¹⁶⁾ 그의 고전적인 상상력 속에서 현실은 사라지고, 오직 고대만이 그의 감각적인 지중해 풍경의 중심부에는 자리하고 있다. 그에게 지중해에서의 항해는 피넬이 주장한 ‘신성의 확인’이라기보다는 아득한 먼 옛날 ‘황금시대로의 복귀, 순수한 상태로 복귀이며, 창조의 공간으로의 진입’이었다. 그는 곤궁한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지중해에서 자신을 정화시키고, 영감의 원천 탐색, 생생한 이미지 탐색이라는 문학적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샤또브리앙은 자신이 동경하던 고대 황금시대의 순수한 풍경을 *Les Martyrs*에서 온전히 되살리려 했다. 이 산문서사시는 4세기 그리스의 펠로폰네스 반도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신화적이고 목가적인 메세니에서 호메로스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자 다신교의 대사제인 데모도퀴스와 그의 딸 시모도세는 호메로스의 신전에 살고 있다. 메세니의 주민들 역시 호메로스의 동시대인들이 가지고 있을만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Les Martyrs*의 이교도 사회는 4세기의 그리스의 부활이 아니라 고대 황금시대의 부활이라고 비판 받기도 했다. 그는 고대에 대한 동

15) Sainte-Beuve, *Chateaubriand et son groupe littéraire sous l'Empire*, Paris, Garnier, 1861, t. II, p.87.

16) “Au pied de l'île de Fano ou de Calypso, on apercevait une flamme allumée par des pêcheurs: avec un peu d'imagination j'aurais pu voir les Nymphes embrassant le vaisseau de Télémaque. Il n'aurait aussi tenu qu'à moi d'entendre Nausicaa folâtrer avec ses compagnes, ou Andromaque pleurer au bord du faux Simois... C'est dans cette île qu'Ulysse fut jeté nu après son naufrage.” I.P.J., pp.776-777.

경과 호메로스의 시적 감흥에 젖어 *L'Odyssée*의 장면들을 부활시켰고,¹⁷⁾ 그리스 여행 중에 자신이 꿈꾸었던 신화와 역사의 추억으로 장식된 지중해를 되살린 것이다.

*Les Martyrs*에서 지중해는 여주인공 시모도세와 함께 등장한다. 그녀는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에 길을 잃고 유모와 떨어져 홀로 바닷가의 산길을 걷는다. 샤또브리앙이 자신의 의지와 영혼을 기꺼이 부여한 그리스의 밤 풍경 묘사는 서로 다른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투명하고 그윽한 느낌을 전해온다.

투명한 어둠이 그리스의 아름다운 하늘을 가리기를 두려워하는 듯한 밤이었다. 밤은 전혀 어둡지 않았다. 다만 빛이 없을 뿐이었다. 대기는 우유와 꿀처럼 부드러웠다. 메세니의 바다는 가장 부드러운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물총새는 등지에서 부드럽게 울고 있었고, 밤바람이 시모도세에게 박하 향과 넵투누스의 은은한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목동은 계곡에 앉아 반짝이는 별무리의 한가운데 떠있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C'était une de ces nuits dont les ombres transparentes semblent craindre de cacher le beau ciel de la Grèce: ce n'étaient point des ténèbres, c'était seulement l'absence du jour. L'air était doux comme le lait et le miel... la mer de Messénie, brillaient de la plus tendre lumière... Alcyon gémissait doucement sur son nid, et le vent de la nuit apportait à Cymodocée les parfums du dictame et la voix lointaine de Neptune; assis dans la vallée, le berger contemplait la lune au milieu du brillant cortège des étoiles...¹⁸⁾

17) "Je voulais en outre peindre les moeurs homériques, et les scènes tranquilles de *L'Odyssée*, au milieu des scènes sanglantes d'une persécution." Chateaubriand, *Les Martyrs*,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이하 L.M.으로 칭함), pp.78-79.

18) L.M., p.112.

대기는 우유와 꿀처럼 부드럽고 밤은 투명하다. 신화적 전통에 맞추어 의인화된 물총새는 고요한 바다 위에서 나지막이 소리 내어 울고 있다. 고대인들이 상처를 치유해 주고 안정을 되찾아 준다고 믿었던 박하 향이 대기를 맴돌고 바다의 신 넵투누스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들로 전이되면서 정적이고 신화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는 촉각과 미각 이미지로는 부드러움과 달콤함, 청각 이미지로는 신화적 분위기를, 후각 이미지로는 안정감을 지중해 풍경에 담아냈다. 서로 다른 감각 이미지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중해의 신화적이며 목가적인 경지가 잘 드러난다.

*Les Martyrs*에서 지중해는 언제나 부드럽고 고요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풍랑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서양의 그것들처럼 뱃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외도르가 항해 중에 만난 풍랑은 오히려 지중해를 편력하게 하여 고전적인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리스의 여러 지방을 유람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는 풍랑 덕분에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조국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맛볼 수 있었다.

모든 육지의 전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버린 7일 동안의 풍랑 이후에 우리는 아킬레우스의 무덤의 피난처에 시모이의 하구 쪽으로 피신해서 너무 행복했었다. 풍랑이 멈추었을 때 우리는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서풍이 우리의 배를 오랫동안 밀어냈다. 우리는 그리스의 에게 해를 편력했다. 거기에서 해변의 온화함, 빛의 찬란함, 대기의 부드러움과 항내가 에게 해와 명성과 추억들로 겨루고 있었다. 막 어린시절에서 벗어났지만 내 상상력은 강렬했고, 내 마음은 이미 깊은 감동으로 민감해졌다.

Après sept jours d'une tempête qui nous déroba la vue de toutes les terres, nous fûmes trop heureux de nous réfugier vers l'embouchure du Simois, à l'abri du tombeau d'Achille. Quand la tempête fut calmée, nous voulûmes remonter à l'occident, mais le constant zéphyр repoussa longtemps nos voiles. Nous parcourûmes cet Archipel de la Grèce, où l'aménité des rivages,

l'éclat de la lumière, la douceur et les parfums de l'air, le disputent au charme des noms et des souvenirs... Quoique à peine sorti de l'enfance, mon imagination était vive et mon coeur déjà susceptible d'émotions profondes.¹⁹⁾

그리스의 지중해에서 시작되어 로마와 알프스를 거쳐 브르타뉴의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외도르의 여정은 역으로 대서양에서 시작되어 지중해까지 이어진 샤또브리앙의 여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작가의 여행 경험이 작품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⁰⁾ 그러나 지중해에서 외도르의 항로는 샤또브리앙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항로는 율리시스나 키케로 등 의 항로와 흡사하다. 피넬이 외도르의 항해를 문학적인 순례였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¹⁾

외도르는 아폴론을 위한 델로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아테네를 나서는 선단을 발견한다. 이 축제는 샤또브리앙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동안 여러 차례 꿈꾸었던 장면들 중의 하나였다. 외도르는 기독교도였지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델로스 축제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꽃과 띠로 덮인 델로스의 배는 신들의 입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여명의 빛으로 지중해의 물든 하얀 돛은 서풍의 입김에 부풀어 있었고, 황금빛 노들은 바다의 수정을 가르고 있었다. 파도 위로 기운 사절단들은 향내와 제주(祭酒)를 뿌리고 있었다. 처녀들은 뱃머리에서 라돈의 불행의 춤을 추고 있었다. 한편 어린이들은 핀다로스과 시모니드의 시를 합창하고 있었다. 이처럼 처음으로 나는 아무런 공포감 없이 이교의 의식에 참여했다.

Le vaisseau Délique, couvert de fleurs et de bandelettes, était orné des statues des dieux; les voiles blanches, teintées de

19) L.M., pp.157-158.

20) P. Moreau, *Eléments autobiographiques du récit d'Eudore*, Boivin, Huguet, 1940, p.56.

21) M. Pinel, *op. cit.*, pp.81-87.

pourpre par les rayons de l'aurore, s'enflaient aux haleines des zéphyr, et les rames dorées fendaient le cristal des mers. Des Théores penchés sur les flots répandaient des parfums et des libations; des vierges exécutaient sur la proue du vaisseau la danse des malheurs de Latone, tandis que des adolescents chantaient en chœur les vers de Pindare et de Simonide... Ce fut ainsi que pour la première fois j'assistai à une cérémonie païenne sans horreur.²²⁾

외도르가 다신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하고 시모도세 역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교적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리샤르가 ‘혼합적’이라고 지적한 특성이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²³⁾ 샤토브리앙은 기독교도이면서도 자신의 영혼과 문학에 고전적인 비전을 기꺼이 새겨 넣었다. 그는 자신이 문학에 끌어들이는 현대적이고 기독교적인 주제들에도 불구하고 고대에 대한 모방과 숭배를 멈추지 않았었다. 오히려 문학이 기댈 만한 확실한 토대는 바로 불변의 모델인 고대문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²⁴⁾ 고전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중해는 그에게 다신교의 신들을 만날 수 있는 견신(見神)의 공간이었으며, 고대 혹은 고전으로의 귀의(歸依)의 통로였다. 그러나 그가 종교적 차원에서 다신교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중해는 그에게 문학적인 영감의 원천이었고, 창조의 공간이었다.

22) L.M., p.159

23) J.-P. Richard, *Paysage de Chateaubriand*, Paris, Seuil, 1967, p.125.

24) “Il y a une base sûre où l'on peut se reposer: c'est la littérature ancienne: elle est là pour modèle invariable.” Chateaubriand, Article d'avril 1801 sur Shakespeare, in *le Mercure de France*.

III. 영혼의 요람

샤또브리앙은 폭풍우와 거센 파도가 몰아치던 밤에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파도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온 이 세상의 첫 소리였다고 회상했다.²⁵⁾ 또한 그는 자신의 ‘첫 울음 소리를 방해한 파도의 으르렁거림’과 폭풍우 소리를 하늘이 자신의 운명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²⁶⁾ 그는 자신의 영혼과 닮은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²⁷⁾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인 무덤을 생 말로 앞바다의 바위섬 그랑 베에 정하기에 이른다. 브르타뉴 반도에서 바라본 대서양은 ‘끝없는 대양과 미지의 세상’ 이외에 아무 것도 없는 광대한 대양이었다.

수없이 많은 해변에서 내가 만났었을 이 바다는 브레스트에서 아르모리끄 반도의 끝을 적시고 있었다. 돌출된 이 갑 이후에는 끝없는 대양과 미지의 세상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나의 상상력은 이 공간에서 뛰어 놀았었다.

Cette mer que je devais rencontrer sur tant de rivages, baignait à Brest l'extrémité de la péninsule armoricaine: après

25) “Né sur les rochers de l'Armorique, le premier bruit qui a frappé mon oreille en venant au monde, est celui de la mer; et sur combien de rivages n'ai-je pas vu depuis se briser ces mêmes flots que je retrouve ici.” Chateaubriand, *Voyage en Amérique*,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이하 V.A.,로 칭함), p.1470.

26) “Le mugissement des vagues, soulevées par une bourrasque annonçant l'équinoxe d'automne, empêchait d'entendre mes cris... la tempête dont le bruit berça mon premier sommeil... Le Ciel sembla réunir ces diverses circonstances pour placer dans mon berceau une image de mes destinées.” Chateaubriand, *Mémoires d'Outre-Tombe*, I,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51(이하 M.O.T.I.로 칭함), pp.17-18.

27) “...dites à la mer toutes mes tendresses pour elle! Dites-lui que je suis né au bruit des flots, qu'elle a vu mes premiers jeux, nourri mes premières passions et mes premiers orages; que je l'aimerai jusqu'à mon dernier soupir.” Lettre à la duchesse de Duras, C.G.II, p.218.

ce cap avancé, il n'y avait plus rien qu'un océan sans bornes et des mondes inconnus: mon imagination se jouait dans ces espaces.²⁸⁾

고전적인 추억을 간직한 지중해가 그에게 친숙한 『문명화된 바다』(la mer civilisée)였다면 대서양은 『야생의 대양』(océan sauvage)이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를 보며 그는 자신의 열정을 키워나갔다.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대서양은 그에게 무한에 대한 갈망을 심어놓았다. 그리하여 대서양은 무한과 미지의 땅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으로 그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끌었던 문학적 대상이 되었다.

외도르는 켈리포네스반도의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로마제국에 대항했던 필로페멘스의 후손으로 16세에 고향을 떠나 불모로 로마에 가야만 하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다. 그는 조국 그리스를 떠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로마제국의 끝 지방 총독에 임명되어 바다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프브리앙의 고향 브르타뉴에 도착한다.²⁹⁾ 율리시즈를 유혹한 칼립소처럼, 텔레마크를 매혹시킨 외사리처럼 벨레디의 격정적인 사랑이 외도르의 임무를 가로막는다. 사랑이 주인공의 임무 수행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은 고대이래로 서사시의 전통이었다.³⁰⁾ 벨레디는 로마의 압제에 맞서 싸우는 골족의 마지막 여승으로 한 밤중에 홀로 파도와 폭풍우와 싸우며 제물을 바치고, 동족들을 불러 모아 집회를 이끌어 간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사람 목소리의 억양이 들려왔다. 동시에

28) M.O.T.I., p.72.

29) "L'Armorique ne m'offrit que des bruyères, des bois, des vallées étroites et profondes traversées de petites rivières que ne remonte point le navigateur, et qui portent à la mer des eaux inconnues; région solitaire, triste, orageuse, enveloppée de brouillards, retentissante du bruit des vents, et dont les côtes hérissées de rochers sont battues d'un océan sauvage." L.M., p.251.

30) "La tradition voulait que dans une épopée il y eût un épisode amoureux: une femme séduisante retenait le héros et faisait obstacle à sa haute mission." R. Lebègue, *Aspects de Chateaubriand*, Paris, Nizet, 1979, p.246.

나는 파도의 끝에서 한 척의 배를 발견했다. 배는 물결 사이로 내려갔다가 사라졌다. 한 여인이 배를 몰고 있었다. 그녀는 풍랑과 싸우며 노래 부르고 있었고, 바람 속에서 노니는 듯했다. 바람이 그녀의 힘에 제압당했고, 그녀가 바람을 무시하는 듯했다.

J'écoute, et je distingue les accents d'une voix humaine; en même temps, je découvre un esquif suspendu au sommet d'une vague; il redescend, disparaît entre deux flots... Une femme le conduisait; elle chantait en luttant contre la tempête, et semblait se jouer dans les vents: on eût dit qu'ils étaient sous sa puissance, tant elle paraissait les braver.³¹⁾

골족의 반란기도가 발각되어 인질로 외도르의 성에 인질로 잡혀온 벨레다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격렬하게 몰아치는 그녀의 사랑 앞에서 외도르는 열정의 동요를 느끼고 결국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그녀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만다.³²⁾ 이렇듯 대서양은 단순한 배경이나 장식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Les Martyrs*의 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외도르와 시모도세의 사랑이 지중해의 이미지를 닮았다면 벨레다와의 사랑은 대서양의 이미지와 닮았다.³³⁾

대서양에서 외도르는 고향 그리스의 청명한 바다와 잔잔한 물결을 떠올린다.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만 하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며 지중해를 그리워하며 눈물짓는다. 바닷가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고통스러운 토로는 샤또브리앙의 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주제였다.

31) L.M., p.252-253.

32) "...j'avais bercé dans mon coeur les passions avec complaisance, il était juste que je subisse le châtement des passions... la fille de Ségenax était jeune, elle était belle, passionnée, et, quand des paroles brûlantes sortaient de ses lèvres, tous mes sens étaient bouleversés." L.M., p.262.

33) "Les deux mers, la Méditerranée et l'Océan, symbolisent les deux amours d'Eudore et les deux aspects de son âme, images de celle de Chateaubriand." M. Lehtonen, *op. cit.*, p.202.

자신의 이타크를 그리워하는 율리시즈처럼 혹은 시실의 들판에 추방된 트로이 사람들처럼 나는 거대하게 펼쳐진 물결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다. 테이제트 산 아래에서 태어난 나는 바다의 슬픈 속삭임은 세상에 태어나며 내 귀를 울린 첫 소리였다고 독백했다. 그 후 얼마나 많은 해변에서 나는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똑같은 물결이 부서지는 것을 보지 못했었던가! 이 세상에서 나의 편력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모험이 없었을 때 죽음이 나를 찾아왔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Comme Ulysse regrettant son Ithaque, ou comme les Troyennes exilées aux champs de la Sicile, je regardais la vaste étendue des flots, et je pleurais. Né au pied du mont Taygète, me disait-je, le triste murmure de la mer est le premier son qui ait frappé mon oreille en venant à la vie. A combien de rivages n'ai-je pas vu depuis se briser les mêmes flots que je contemple ici! Heureux si la mort m'eût surpris avant d'avoir commencé mes courses sur la terre, et lorsque je n'avais d'aventures à conter à personne!³⁴⁾

외도르는 샤프브리앙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다와의 친교를 시작했다. 둘 모두 바닷가에서 태어났으며 그들이 들었던 세상의 첫 소리는 파도 소리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대서양의 파도가 거친 으르렁거림이었다면 지중해의 파도는 외도르의 운명을 예고하듯 '슬픈 사랑거림'으로 들려온다. 무거운 납빛 하늘 아래 파도가 몰아치는 대서양이 격렬하고 역동적인 바다라면 투명한 하늘빛으로 빛나는 지중해는 고요하고 정적인 바다이다. 대서양의 파도가 '포효', '으르렁거림' 등 격렬한 어휘로 묘사되어 있다면 지중해의 파도는 '사랑거림'이나 '속삭임' 등 주로 부드럽고 감미로운 어휘들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듯 샤프브리앙에게 고요와 안정이 서려 있는 지중해는 대서양과는 대립되는 이미지를 갖는다.

34) L.M., p.265.

문명화된 나라들의 북편에 놓여있고, 아름다운 섬들이 있으며 도금양이 서있는 해변을 적시는 지중해는 아폴론, 네레이디스, 비너스가 태어난 이 바다에 대한 관념들을 곧바로 전해준다. 한편 풍량이 일고, 미지의 세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서양은 유령들의 요람이리라.

La Méditerranée, placée au centre des pays civilisés, semée d'îles riantes, baignant des côtes plantées de myrtes... donne sur-le-champ l'idée de cette mer où naquirent Apollon, les Néréides et Vénus, tandis que l'Océan, livré aux tempêtes, environné de terres inconnues, devait être le berceau des fantômes...³⁵⁾

샤또브리앙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특히 찬란한 빛의 효과로 지중해의 풍경은 대서양의 그것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가 묘사한 지중해 풍경에는 빛나는 태양 아래 샘물이 흐르듯 잔잔하게 살랑거리고 하얀 배들이 평화로이 흩뿌려져 있으며 물안개가 가볍게 피어올라 하늘과 뒤섞여 있다. 무한을 향해 펼쳐진 대서양과 달리 지중해에는 육지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교량과도 같이 도처에 아름다운 섬들이 널려있고, 다양한 건축물들이 해변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펠로폰네스, 아티크, 이오니, 에게 해의 섬들의 갑들 대부분에는 사원과 전승 기념과 그리고 무덤이 남아있었다. 숲과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모든 빛의 변화에 드러나는 이 유적들은 그리스의 해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La plupart des promontoires du Péloponèse, de l'Attique, de l'Ionie et des îles de l'Archipel étaient marqués par des temples, des trophées ou des tombeaux. Ces monuments environnés de bois et de rochers, vus dans tous les accidents de la lumière,

35) I.P.J., p.772.

devaient rendre les côtes de la Grèce d'une incomparable beauté.³⁶⁾

샤또브리앙은 항해 중에 파노, 웨리, 이타크 등 많은 섬들을 만났다. 이 섬들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인 장소처럼 등장한다. 섬들은 그에게 고대의 역사적이거나 신화적인 장면들을 되살려줌으로서 문명의 영원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원, 전승 기념관, 무덤 등 해변의 유적들 역시 영원한 것으로 그에게 영속성에 대한 하나의 계시이기도 했다. 그는 철새들이 휴식을 위해 비상을 멈추듯이 배들이 항해를 멈추고 포근하게 맞이하는 항구로 돌아오는 모습을 주목했다.

지나가던 한 무리의 비둘기 떼가 환대하는 해변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날개를 접듯이 이오니아의 한 선단이 코로네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 돛을 접고 있었다.

...une flotte Ionienne baissait ses voiles pour entrer au port de Coronée, comme une troupe de colombes passagères ploie ses ailes pour se reposer sur un rivage hospitalier.³⁷⁾

지중해의 항구는 배들이 항해를 멈추고 돛을 접음에 따라 닫힌 공간으로 의미지어 진다. 샤또브리앙은 대서양에서는 휴식을 위해 항구로 귀환하는 배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었다. 그가 정박 중인 배를 주목했다면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표출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³⁸⁾ 그는 지중해가 표출하는 안정과 휴식이라는 정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내적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갈구하던 안

36) I.P.J., p.900.

37) L.M., p.112.

38) “Je ne puis regarder un vaisseau sans avoir envie de m'en aller: si j'étais libre, le premier navire cinglant aux Indes aurait des chances de m'emporter.” M.O.T.I., p.82.

정과 휴식이 지중해의 항구라는 공간의 안정성으로 표상된 것이다. 따라서 *Les Martyrs*에서 대부분의 지중해 풍경이 표출하고 있는 고요, 안정, 휴식 등의 정서는 지중해의 외적 풍경이면서 동시에 그의 영혼이 갈구하는 내적 심경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서양의 거친 파도 소리와 폭풍우는 외도르의 자아를 일깨우는 각성의 소리로 고요한 상태의 존재를 뒤흔들어 고통스러운 걱정을 불러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³⁹⁾ 그러나 지중해는 그에게 어떠한 걱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오히려 절대적인 고요함을 지닌 지중해는 그에게 안정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나는 주랑에 도착하며 바닷가에 있는 나를 보고 언제나 놀라곤 했다. 이 곳의 파도는 겨우 샘의 가벼운 속삭임으로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 풍경 앞에서 황홀감에 잠겨 나는 기둥에 기대어 있었다. 어떠한 생각도 욕망도 계획도 없이 나는 감미로운 대기를 들이마시며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 아름다움이 너무도 커서 나는 마치 이 천상의 대기가 나의 고유한 실체를 변화시키는 것 같았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 내가 순수한 영(靈)처럼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듯 했다.

J'étais toujours surpris en arrivant au portique de me trouver au bord de la mer: car les vagues dans cet endroit faisaient à peine entendre le léger murmure d'une fontaine. En extase devant ce tableau, je m'appuyais contre une colonne; et, sans pensée, sans désir, sans projet, je restais des heures entières à respirer un air délicieux. Le charme était si profond, qu'il me semblait que cet air divin transformait ma propre substance, et qu'avec un plaisir indicible je m'élevais vers le firmament comme un pur esprit.⁴⁰⁾

39) “La mer se brisait au-dessous de nous parmi des écueils avec un bruit horrible. Ses tourbillons, poussés par le vent, s'élançaient contre le rocher, et nous couvraient d'écume et d'étincelles de feu.” L.M., p.270.

40) L.M., p.175.

샤또브리앙은 지중해를 “달혀있는 바다”라고 했다. 그에게 대서양이 ‘열려있는 바다’ 혹은 ‘외부의 바다’였다면 지중해는 ‘내부의 바다’ 혹은 ‘내부의 호수’였다.⁴¹⁾ 피넬은 이러한 차이는 폭풍우 속에서 그가 관찰한 바다의 움직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이 차이는 두 바다를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고대인들에게 지중해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한 대서양과 다를 바 없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고대인들과는 다르게 지중해를 인식했다. 같은 대상이라 해도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마다의 의식의 지향성은 다를 수 있으며 다르게 표상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잠자리의 요람들을 어루만졌다. 나는 손을 바다에 담갔다. 나는 쓴맛을 느끼지 못하고 성스러운 바닷물을 내 입에 머금었다. 그리고 나는 내 귀에 애절하고, 친숙하고, 부드럽게 들려오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바닷가를 산책했다.

Je caressai ces berceuses de ma couche; je plongeai mes mains dans la mer; je portai à ma bouche son eau sacrée, sans en sentir l'amertume: puis je me promenai au limbe des flots, écoutant leur bruit dolent, familier et doux à mon oreille.⁴³⁾

이렇듯 샤또브리앙은 리도의 바닷가에서 그는 촉각, 미각, 청각, 시각 등 모든 감각으로 지중해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느껴보려 했다. 그는 지중해를 애무하듯 어루만지고 손을 담가 바닷물을 음미한다. 또한 그는 애정 어린 눈길로 바닷가를 둘러보며 부드럽고 감미로운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의 표현대로 지중해는 그에게 영혼의 요람이었고 자장기였으며 유모였다. ‘애무’, ‘요람’, ‘잠자리’, ‘친숙한’, ‘부드러운’ 등의 어휘들이 보여주듯

41) “Les Grecs et les Romains avaient été nourris aux bords de cette étendue d'eau intérieure qui ressemble plutôt à un grand lac qu'à un océan.” V.A., p.630.

42) M. Pinel, *op. cit.*, p.52.

43) M.O.T.II., p.1031.

지중해에서 그의 의식은 안정과 휴식을 지향했고 그는 지중해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려 했다. 그는 불안하고 걱정적인 삶 속에서 안정과 휴식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지중해를 통해서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IV. 결론

*Les Martyrs*에서 대서양은 아득하고 무한하며 끊임없이 폭풍우가 일고 언제나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으로 대부분 묘사되어 있다. 무한, 걱정, 불안을 상징하는 이 공간은 샤또브리앙의 삶과 영혼의 한 표상이었다. 지중해는 그에게 문명의 바다, 단혀있는 바다였다. 정적이었으며 고전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중해는 영원과 안정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개방성으로 표상된 대서양이 역동적인 대상이라면, 폐쇄성으로 표상된 지중해는 정적인 대상이다. 대서양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지중해는 그에게 친숙하고 안정적인 존재였다. 지중해가 표출하고 있는 고요와 안정의 정서는 그의 영혼이 갈구했던 내적 심경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지중해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정신적이며 문학적인 구원을 얻으려 한 것이다.

샤또브리앙은 끊임없이 무한을 향한 역동적인 비상을 추구하며 동시에 정착을 꿈꾸었다. 그는 열정의 동요를 탐닉하면서도 안정과 고요를 갈망했다. 문학적으로 그는 낭만주의라는 미래를 향한 도약을 추구하면서도 고전적인 황금시대로의 복귀를 시도했다. 그의 영혼과 문학의 이러한 두 양상은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대서양과 지중해라는 두 바다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무한을 향한 그의 걱정이 대서양의 이미지로 표출되었다면 고요와 안정을 추구하는 내면 의식은 지중해의 이미지로 표출된 것이다. 고전적인 비전과 안정이 서려있는 지중해는 그에게 선행의 대상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의 공간이며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참고문헌

샤또브리앙의 작품

- Mémoires d'Outre-Tombe*, I. II,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51.
- René*,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
- Voyage en Amérique*,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
- Itinéraire de Paris à Jérusalem*,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
- Les Martyrs*, Par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
- Correspondance générale*, I. II, Paris, Gallimard, 1977-1979.

연구서

- 김현, 「바다의 이미지 분석」, in 『프랑스 현대문학을 찾아서』, 기린총서 32, 1989.
- Andlau(B. d'), *Chateaubriand et les Martyrs*, Paris, José Corti, 1953.
- Barbérís(P.), *René de Chateaubriand: un nouveau roman*, Paris, Larrousse, 1973.
- Bassan(F.), *Chateaubriand et la terre sainte*, Paris, P.U.F., 1959.
- Bertrand(L.), *La fin du classicisme et le retour à l'antique*, Paris, Fayard&Cie, 1946.
- Canat,(R.), *L'Hellénisme des Romantiques*, Paris. Didier, 1951.
- Clarac(P.), *A la recherche de Chateaubriand*, Paris, Edition Nizet, 1975.
- Didier(B.), *La Littérature français sous le Consulat et Empire*, Paris, P.U.F., 1992.
- Gohin(F.), “Etude historique et littéraire de l'épisode de Velléda”, in

- Revue de Bretagne, de Vendée et d'Anjou*, 1889.
- Himmelsbach(S.), *L'Épopée ou la case vide, La réflexion poétologique sur l'épopée nationale en France*, Tübingen, Niemeyer, 1988.
- La Croix(R. de), *Les écrivains de la mer*, Paris, Christian de Bartillat, 1987.
- Lebègue(R.), *Aspects de Chateaubriand*, Paris, Nizet, 1979.
- Lehtonen(M.), "Chateaubriand et le thème de la mer", in *Cahier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Études françaises*, Paris, Les Belles Lettres, 1968.
- Mathé(R.), *L'Exotisme*, Paris, Bordas, 1985.
- Moreau(P.), *La Conversion de Chateaubriand*, Paris, Félix Alcan, 1933.
- O'Flaherty(K) *Pessimisme de Chateaubriand*, Académie Européenne du livre, 1989.
- Pinel(M.), *La Mer et le Sacré chez Chateaubriand*, Albertville, Claude Alzieu, 1994.
- Regard(M.), "Sources avouées et sources secrètes dans *les Martyrs*", in *Bulletin de la société Chateaubriand*, 1967.
- Richard(J. P.), *Paysage de Chateaubriand*, Paris, Seuil, 1967.
- Sainte-Beuve(C.-A.), *Chateaubriand et son groupe littéraire sous l'Empire*, Paris, Garnier, 1861.
- Todorov(T.), *La réflexion française sur la diversité humaine*, Paris, Seuil, 1963.
- Vial(A.), *Chateaubriand et le temps perdu*, Paris, Sedes, 1963.

<Résumé>

Etude comparative entre les images de la Méditerranée et de l'Océan Atlantique chez Chateaubriand

LEE San Ho

Chateaubriand est fut un grand écrivain de mer, et ne cessa de s'en venter à chaque occasion. Le voyage des deux mers, l'Océan Atlantique et la Méditerranée est, pour lui, parfois une source d'inspiration classique et une recherche d'image, mais aussi une échappatoire hors de la réalité inquiète. A l'occasion de son voyage en Méditerranée, il découvre le charme des paysages méridionaux, et il suit les traces des dieux polythéistes et de grands anciens. Fasciné par le charme, il aime à le chercher avec des yeux d'héritier de la tradition classique et nous le fait apprécier à travers *Les Martyrs* et *L'Itinéraire de Paris à Jérusalem* où il réanime la vie des anciens et leurs civilisations. Il retrace magnifiquement ce qu'il chérit surtout dans le paysage de la Méditerranée: la douceur du climat, les souvenirs historique et mythologique de l'antiquité, l'architecture décorative au bord de la mer.

Sur la Méditerranée, le véritable intérêt de Chateaubriand est la sérénité de cette mer fermée et les souvenirs de l'antiquité; il veut avoir la tranquillité d'esprit et se nourrit des souvenirs de l'antiquité

et des exemples de l'histoire. Si l'Océan Atlantique, livré aux tempêtes, environné de terres inconnus, est la mer sauvage, la Méditerranée, placée au centre des pays civilisée, semée d'îles riantes, est la mer apprivoisée. Dans ses oeuvres, l'Océan Atlantique orageuse représente l'inquiétude et le besoin d'infini, et la Méditerranée calme représente la tranquillité absolue et l'éternité. Les images de ces deux mers correspondent aux deux aspects de son âme. La Méditerranée qui est le berceau de la civilisation antique, et est uniformément calme, est, pour lui, le refuge où il peut se reposer tranquillement sans être tourmenté.

주 제 어 : 샤또브리앙, 바다의 이미지, 대서양의 이미지,
지중해의 이미지, Les Martyrs,
Itinéraire de Paris à Jérusalem.

투 고 일 : 2008. 3. 25

심사완료일 : 2008. 4. 30